

자족, 뒷걸음질인가 행복의 원리인가

김옥암 “신자유주의 한계 봉착... 소육지족의 불교경제학 요청된다”



김옥암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번역되어 나온 이후 불교경제학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저작이 없을뿐더러 관련 논문도 가뭇이 콩 나듯 드물다. 최근 나온 (자족의 경제학)은 그래서 반갑다. 저자는 안동대 경제학과의 김옥암 교수. 전환시대인 지금 새로운 경제사조가 요청되며,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소육지족(小欲知足)'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자유주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1960년대 이후 미국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수출주도 경제성장주의 노선만으로 오로지 달려왔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속에서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필사적이 되어 배급주의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종착점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가정의 모멸, 도의의 구조적 붕괴라는 결과로 귀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대처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는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지구환경의 재생과 소득과 부의 격차 축소 등을 통하여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바로 세우야 할 때이며, 그 중추에 두어야 할 것이 소육지족 사상이다.” [본문 111~112p.]

이런 까닭에 이 책은 현실경제를 지배하는 신자

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계급투쟁을 기조로 하는 마르크스주의도 비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배려의 미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되새긴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삼독(三毒)이라 불리는 탐진치(貪瞋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탐욕 같은 불은 없고, 성냄 같은 악은 없고, 오취운(五取蘊) 같은 괴로움은 없고, 적정(寂靜) 같은 행복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자족할 줄 모른다. 무한 경쟁 시대에 자족은 주저앉을 같은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자족(自足)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살더라도 만족함을 모르고 항상 물욕에 끌려서 희락을 모르는 법이다”고 설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자족은 뒷걸음질이나 행복의 원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불교경제학 논의를 촉발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불교사상과 경제학의 관련성, 불교경제학의 이론적 토대, 불교행복론 등은 충분한 논거를 띠고 있다.

어렵다 싶은 경제용어는 책 아래에 설명을 붙여 경제학에 아예 답을 쫓지 않았다면 일독하기에 어렵지 않다. **자족의 경제학 | 김옥암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1만1000원**

정성운 기자 woon1653@hanmail.net

6년에 걸친 대화 통해 서로를 이해하다

종교간 소통을 위한 종교인 모임 대화 기록



교단대 유학대), 한순희 수녀(성심여자대학)가 대화에 참여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 종교 대화 모임 지음 | 윤주사 펴냄 | 2만3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허공법문	법륜	고려원북스
4	선방일기	김기추	불광출판사
5	간담 강이 어디 있느냐	지허	한미음선원
6	사벽의 대화	대행	도미안사
7	번뇌 리셋	지허	불광출판사
8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간세기북스
9	다름을 바꾸는 48일간의 기도	코이케 류노스케	윤주사
10	법정 스님 선묵	법정	다래헌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02)3672-7181



‘불교와 사회’란 용어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화한다는 명제를 담고 있다. 1980~90년대 불교의 사회참여가 이웃종교에 비해 미미했다는 반성과 함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론적 기반은 취약했다.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다.

불교와 경제는 더욱 그렇다. 독일 태생의 경제사상가이며 실천가였던 슈마허(E. F. 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가 1988년

윤남진 REVIEW



예리 칼렌드 지음

물론의 변곡점(기하급수적 상승)을 의미하는 것일까? 종교는 미래에 사회통합적으로 작용할까 아니면 사회갈등적으로 작용할까? 다음 세대의 종교 전승은 안녕할 것인가? 디지털네이티브 제1세대(현재 10~15세)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취급될까? 이들 세대가 사회활동에 본격 진입하는 10~15년 후 종교는 이들에게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생명의 탄생과 결혼, 죽음과 같은 통과례는 여전히 중요한 상징으로 기념될까? 죽음의 의미는 여전히 종교적이고 형이상학

일까? 이밖에도 다양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면 질문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이제 좀 색다른 질문을 해보자. 수련 연못의 수련이 매일 2백씩 연못을 덮어가서 30일째 되는 날 연못이 수련으로 가득 찬다고 해보자. 그럼 29일째 되는 날 수련 연못은? 단지 절반만 이 수련으로 차있을 것이다(《통신》에서 인용).

또 하나 생각해볼까. 얇은 종이를 접고 또 접고 또 다시 접어서 50번을 접었을 때, 마지막 접은 종

은 과학적 접근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교단차원에서 미래연구기관(오직 미래를 주제로 탐구하는)이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기대할 수 없다면 독자 스스로 미래탐구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필자가 열거한 여러 질문들은 필자가 평소 관심을 두고 살피고 있는 사회현상들이다. 정치와 시민(사회)과 종교관계, 아시아의 종교지형 변화, 저출산 고령사회와 종교, 디지털혁명과 종교, 생명공학(나노과학)과 종교, 교육(사회적 학습)과 종교. 이런 영역들을 주제로 사회현상

랜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디지털 1기 시대의 화두가 ‘속도’였다면, 이제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간디의 말을 언급하며, 디지털 2기는 ‘개방과 공유’가 화두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스피릿, 일과 교육, 놀이, 네트워크, 성과 세대, 공간, 감각’과 같이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분석 자체가 신선한 발상으로 느껴진다.

<2020미래교육보고서>는 UN의 미래연구를 바탕으로 교육분야의 변화를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종교조직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세를 살펴야 하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종교적 메시지는 지식정보의 바다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송출되고 학습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래의 학습은 아이들에서 어른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성인교육 시장의 팽창이 종교(시장)의 변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화를 아는 것은 두렵기도 한 것이지만 역사의 매듭마다 늘 용기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있어 왔음을 믿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용기있는 자 변화를 두려워 않는다

자, 이런 질문을 해 보자. 미래에 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종교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이 종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대체재일까? 중국과 이슬람세계에서 종교는 어떻게 진화할까? 그리고 그것이 세계 종교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결정적 변화는 대체로 몇 년 후에 나타날까? 인터넷은 종교·문화적 관용과 다양성에 기여할까?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개신교의 배타성(불관용)의 심화는 역도물선의 변곡점(기하급수적 하락지점)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적으로만 해석될까? 그리고 그 해석적 의미 또한 몇 가지 전형적 해석 패턴에서 그치지 변하지 않을까? 출가수행자는 충분히 확보되고 유지될까? 독신으로서의 출가생활은 독신으로서의 사회공헌생활보다 매력적이고 고귀한 것으로 평가될까? (기존의 교단에서 고령 출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령자 위주의 새로운 출가공동체가 생겨나지는 않을까? 비(非)디지털 공간이 디지털사회의 자연휴양림처럼 사랑받진 않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한문과 서예 같은 전통강원의 수업방식을 출가자의 스킬로서 충분히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건 아

이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 태양에 이르는 두께가 된다(태양 포인트)에서 인용). 이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과 폭발적인 변화의 요인들을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연못에 수련이 절반 밖에 차지 않았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연못에 가득 찬 수련을 보고 갑탄사나 연밭하는 그런 신세 말이다. 우리가 이런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읽

을 참구하다보면 일정한 경향성과 흐름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일정한 기법에 따라 시스템화하면 유용한 예측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를 읽는 기술>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 트렌드를 읽는 도구와 테크닉을 친절하게 분석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고령화를 비롯한 8개 영역별로 미래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트랜드2011>은 2010년을 풍미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해 분석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진화한다’는 뜻의 공진화(共進化)를 2011년의 트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중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계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북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배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순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물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법당: 02)742-0172 대구법당: 053)425-3063
포항법당: 054)261-2231 울산법당: 052)211-2161
부산법당: 051)514-3566 대전법당: 042)862-5539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권인동 योग마늘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입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2원 구입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합비 2500원 (5만 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후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co.kr

누워하는 참선 + 와선체조

와臥禪선

중단전차크라(명치, 화병, 상기병)단전 시원하게~ 뚫어 줌

호흡조율, 몸통아리 초월, 공(空)삼매 즉석 체험
머리에서 잠 생각 망상이 깨미때 벌떼처럼 빠져나감
엄청난 오로라 전신에 꽂 찬 황홀경 누구나 체험
진짜 달콤한 감로침! 행복감 체험

피로회복 · 면역력증대 체험 100%
발 무릎 꼬리뼈에서 냉기, 병기, 나쁜 기운 빠져나감
스트레스 해소 · 우울 · 불안 · 고민 해소 체험 100%

▶대상: 누구나, 스님, 선생님, 교수님, 연구직, 예술가
템플스테이 운영자, 출가예정자, 참선, 위빠사나
고시생, 수험생, 유능한 CEO, 사회지도자

☞ 아니빠나서도 수행이 잘 안 되시는 분
☞ 심장박동, 생각, 마음 보기 뚜렷한 체험이 없는 분
☞ 참선, 염불, 절, 명상수행의 진전이 없으신 분
☞ 목, 뒷골, 어깨, 명치, 단전이 저질로 풀리고, 뽕뽕 체험
☞ 꿈 많고, 자다 깨다 반복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분
☞ 스트레스 지수 면역력 콜레스테롤 엔돌핀, 토탄민, 세로토닌
검사해 보시면 100% 놀라움 확인

♣ **청견스님 직접 교육 수행지도** ♣

☎ 02)456-0035 (서울·부산·대구·광주법당)
www.법왕정사.kr (와선특강)
▶매주 화요일·질교육, 2011년 1월부터 수행템플스테이 운영